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박 영 숙*

초 록

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그리고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문계 고등학생 445명, 실업계 고등학생 409명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우울은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를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부모지지는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었던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는 부모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셋째,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친구지지는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는 친구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넷째,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부모갈등은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던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부모갈등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친구갈등은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친구갈등의 조절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개입할 때 학교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자살사고, 우울,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갈등, 친구갈등, 위험요인, 보호요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24세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은 사망원인 1위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2위에 해당되고, 그 비율은 22.4%를 차지함으로써 23.6%를 차지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비율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7).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상담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3,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자살생각 경험자는 46.0%, 자살방법까지 생각해 본 경우 13.9%, 자살시도 경험자가 6.4%였고, 자살생각을 최근 6개월간 거의 매일 6.3%, 1주 1~2번 7.9%, 1달 1~2번 24.2% 하였다고 응답되었다. 이 조사결과는 일반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경험, 자살방법생각, 자살시도경험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있음을 밝혀주고, 일반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위험성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청소년 자살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자살현상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적 대처를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을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살은 지속적인 정신장애나 만성적인 가족관계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당면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Schmidt et al., 2002). 이 연구는 자살로 사망했던 아동, 청소년, 젊은 성인 37명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살의 자기도피 이론을 제시한 Baumeister(1990)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로의 이르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aumeister(1990) 이론에 의하면, 자살이란 기대상황과 현실상황에서의 괴리로 인해 좌절이 발생되고 이러한 좌절로부터 도피하려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초래되는 것을 설명되고 있다. 즉 개인의 기대치나 기준이 너무 높은데 비해 현실적 상태가 너무 낮아서 기대상황과 현실 상황 사이에서의 괴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함으로써 자살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살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는 스트레스는 대상상실

이나 신체적, 성적 폭력과 같은 특정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역시 자살행동을 촉발시키는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ldvogel et al, 2008).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와 자살이론에서는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나 심각한 특정 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한편 청소년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이나 자살의 위험성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을 밝혀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들 가운데 우울이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Houston 외(2001) 연구자들은 15~24세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후 심리학적 부검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 자살자의 70.4%에서 우울이 진단되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환자군이 아닌 일반 청소년 연구에서도 주요 위험요인으로서의 우울의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김보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심리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학교환경적 변인 가운데 심리적 변인군이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가 가장 컸고, 심리적 변인들 가운데서는 우울이 가장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김미애(2008)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약 23.5%가 우울에 의해 설명되고,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우울은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해줄 수 있는 변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외 다른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도 우울은 자살을 예측하거나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는 점이 반복 검증되었다(신민섭 외, 1991; Beautrais et al., 1998; 전영주, 이숙현, 2000; 박영숙, 2001; 하상훈, 2001; 조성진 외, 2002; 정혜경 외, 2003; Lauren 외, 2004; 홍영수, 전선영, 2005; Brausch & Muehlenkamp, 2007; 김보영, 2008; Kim & Kim, 2008).

또한 우울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정계숙(2005)의 연구에서 우울은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고, 홍영수와 전선영(2005)에 의해서도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관련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현순(2008)의 연구 역시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우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우울은 절망보다 더욱 강력한 매개변인으로서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단일 요인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위험요인이

라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와 같은 대인관계 요인과 학교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요인이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은희 외, 2000; 전영주, 이숙현, 2000; 김은정, 2002; 정혜경 외, 2003).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 연구로는 지지적 가족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Warger, 1997; Fergusson, et al, 2000), 가족지지는 가족응집력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호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었다(Harris, Molock, 2000). 국내 연구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성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정혜경 외, 2003)이고,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가 가장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되었다(김미애, 2008). 또한 친구지지 역시 청소년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보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Cheng, Chan, 2007).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심리적 변인 -우울, 높은 수준의 신체화 증상과 더불어 기능적이지 않은 부모, 질이 낮은 부모자녀 관계가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이라고 설명되었다(Kim & Kim, 2008). 그 외에도 Daniel(2002)은 낮은 가족지지 수준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가족관계와 또래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던 연구도 있었는데, Sheung-Tak과 Alfred(2007)은 낮은 가족지지와 낮은 또래지지 가운데 낮은 가족지지가 청소년 자살시도에 대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인이라고 설명하였고, Leilani와 Laura(2002)도 낮은 수준의 가족지지가 낮은 수준의 또래지지에 비해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김미애(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지지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부모지지에 서만 중재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지금까지의 국내외 청소년 자살연구들은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 가운데 한 계열의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환경적 조건이나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이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내에서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영역에 차이가 있었는데,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스트레

스가 높았고, 실업계학생들의 경우 가정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김명진, 2004). 이러한 계열별 학생에 따른 스트레스 유형의 차이는 인문계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라는 목표에 따라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는데 비해 실업계 학생들은 가정이 빈곤하거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계열별 학생에 따른 스트레스 내용의 차이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공부방법에 대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확고한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각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손득운, 2008). 한편 이수연과 전은영(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에 있어서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있어서 학교스트레스나 가족환경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관계, 친구관계, 우울, 그리고 자살사고에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부모관계, 친구관계, 학교스트레스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선택적으로만 접근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갈등, 친구갈등의 대인관계 요인과 학교스트레스의 환경요인이 자살사고에 대해 보호적 요인으로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6개 고등학교에서 1, 2학년 854명(인문계 고등학생 445명, 실업계 고등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을 제외하고 83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교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스트레스 척도는 김수주(2002)가 22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 요구를 평가하는 척도로 Likert식 4점 척도에 따라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으로는 학업요인, 친구요인, 교사 및 학교생활 요인이 있다. 김수주(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5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지지 척도

부모의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3) 친구의 지지 척도

Harter(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SSS)를 이명숙(1994)이 번안한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친구지지 13문항, 급우지지 11문항, 부모지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 영역에 해당하는 13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명숙(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6으로 나타났다.

4) 부모와의 갈등 척도

Printz 외(1979)의 문제항목조사지 IC(Issues-Checklist)를 바탕으로 김정수(1997)가 22문항으로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자녀 간 갈등 영역에서 청소년 자녀가 얼마나 갈등을 지각하는지를 측정한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수(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5) 친구와의 갈등 척도

친구와의 갈등척도는 Mendelson과 Aboud(1999)의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를 이은 해와 고윤주(1999)가 번안한 척도를 응답 방식을 Likert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홍주영(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친구관계 척도의 전체 26문항 가운데 친구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관한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주영(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6) 우울 척도

Zung(1965)에 의해 개발된 20개 문항의 우울척도(Zung Depression Inventory: ZDI)를 신민섭 외(1990)가 번안하였다. 개인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예', '아니오'로 응답한다. Cronbach's alpha는 신민섭 외(1990)의 연구에서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7) 자살사고 척도

Beck 외(1979)에 의해 개발된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는 원래 임상가가 면접을 통해 3점 척도 상에 평정하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이다. 그러나 신민섭 외(1990)가 자기보고형 질문지 3점 척도로 변형시켜 번안하였다. Cronbach's alpha는 신민섭 외(1990)의 연구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각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그리고 자살사고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변수 간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 4) 연구변수 간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자살사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면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모지지, 부모갈등, 친구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자살사고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인문계(n=445)	실업계(n=409)	F 값
학교생활스트레스	46.632(6.569)	46.533(6.484)	.048
부모지지	90.261(6.525)	87.958(17.065)	3.921*
친구지지	40.148(4.716)	40.058(4.880)	8.089
부모와의 갈등	50.971(14.960)	48.132(13.794)	.073**
친구와의 갈등	34.678(8.410)	33.240(8.126)	6.296*
우울	23.757(3.308)	23.693(3.352)	1.068
자살사고	6.005(5.822)	5.601(5.455)	.076

***p<.001, **p<.01, *p<.05

2.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자살사고 점수 간 상관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학교생활스트레스는 부모지지(인문계: $r=-.324$, $p<.001$, 실업계: $r=-.289$,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인문계: $r=.319$, $p<.001$, 실업계: $r=.203$, $p<.001$), 자살사고(인문계: $r=.287$, $p<.001$, 실업계: $r=.210$,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부모지지는 친구지지(인문계: $r=.220$, $p<.001$, 실업계: $r=.213$, $p<.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우울(인문계: $r=-.304$, $p<.001$, 실업계: $r=-.384$, $p<.001$) 및 자살사고(인문계: $r=-.345$, $p<.001$, 실업계: $r=-.370$, $p<.001$)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에서는 부모지지와 부모와의 갈등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계 고등학생에서는 이들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r=-.294$, $p<.001$). 반면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친구지지는 우울(인문계: $r=-.164$, $p<.01$, 실업계: $r=-.311$, $p<.001$)과는 부적상관이 있었지만, 자살사고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친구와의 갈등(인문계: $r=.226$, $p<.001$, 실업계: $r=.239$,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은 자살사고($r=.160$, $p<.01$)와 미약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실업계 고등학생에서는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친구와의 갈등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우울(인문계: $r=.126$, $p<.01$, 실업계: $r=.223$, $p<.001$) 및 자살사고(인문계: $r=.314$, $p<.001$, 실업계: $r=.150$,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부모와의 갈등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상관을 보였고, 자살사고와의 상관은 인문계 실업계 각각 $r=.401$ ($p<.001$), $r=.282$ ($p<.001$)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친구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었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는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상관이 나타났다.

<표 2> 인문계 고등학생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자살사고 점수 간 상관

	1	2	3	4	5	6	7
1	-						
2	-.324***	-					
3	-.133**	.220***	-				
4	.106*	-.294***	-.064	-			
5	.136**	-.199***	-.128**	.226***	-		
6	.319***	-.304***	-.164**	.074	.126**	-	
7	.287***	-.345***	-.069	.160**	.314***	.401***	-

***p<.001, **p<.01, *p<.05

1. 학교생활스트레스
2. 부모지지
3. 친구지지
4. 부모와의 갈등
5. 친구와의 갈등
6. 우울
7. 자살사고

<표 3>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자살사고 점수 간 상관

	1	2	3	4	5	6	7
1	-						
2	-.289***	-					
3	-.009	.213***	-				
4	.095	-.069	-.100*	-			
5	.193***	-.148**	-.076	.239***	-		
6	.203***	-.384***	-.311***	.068	.223***	-	
7	.210***	-.370***	-.046	.080	.150**	.282***	-

***p<.001, **p<.01, *p<.05

1. 학교생활스트레스
2. 부모지지
3. 친구지지
4. 부모와의 갈등
5. 친구와의 갈등
6. 우울
7. 자살사고

3.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우울이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을 추가할 때 독립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β 계수가 감소하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단계, 2단계는 각각 단순 회귀분석을 하였고, 3단계는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서 우울은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부분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인문계: $a=.160$, $sa=.027$, $b=.804$, $sb=.091$, 실업계: $a=.074$, $sa=.033$, $b=.479$, $sb=.095$)을 실시해 본 결과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Sobel's T : 인문계: $Z=4.921$, $p<.001$, 실업계: $Z=2.049$, $p<.05$).

<표 4>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종속변인	β	ΔR^2
1단계	학교생활스트레스 → 우울	.311***	.072
2단계	학교생활스트레스 → 자살사고	.268***	.050
3단계	학교생활스트레스 → 자살사고 우울 → 자살사고	.143** .401***	.217

*** $p<.001$, ** $p<.01$, * $p<.05$

<표 5>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종속변인	β	ΔR^2
1단계	학교생활스트레스 → 우울	.135*	.015
2단계	학교생활스트레스 → 자살사고	.167**	.028
3단계	학교생활스트레스 → 자살사고 우울 → 자살사고	.130** .272***	.100

*** $p<.001$, ** $p<.01$, * $p<.05$

4.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자살사고에 대해 우울과 부모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우울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부모지지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간의 교차항을 투입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나누어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표 7>에 제시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t(436)=8.856, \beta=.445, p<.001$)과 부모지지($t(436)=-5.092, \beta=-.253, p<.001$)의 주효과는 있었지만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t(401)=5.027, \beta=.289, p<.001$)과 부모지지($t(401)=-4.727, \beta=-.285,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우울과 부모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t(401)=-4.131, \beta=-1.323, p<.001$)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모지지 중앙치를 중심으로 집단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낮은 부모지지를 보인 집단의 경우 우울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t(180)=3.923, \beta=.316, p<.001$), 높은 부모지지를 보인 집단의 경우, 우울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표 6>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부모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804 (.091)	.445***	.700 (.090)	.388***	.441 (.417)	.244
조절변인	부모지지			-.090 (.018)	-.253***	-.166 (.122)	-.467
교차항	우울 * 부모지지					.003 (.005)	.231
R^2		.198		.259		.260	
F		78.425***		55.258***		36.903***	

*** $p<.001$, ** $p<.01$, * $p<.05$

<표 7>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부모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479 (.095)	.289***	.294 (100)	.178**	1.704 (.355)	1.029***
조절변인	부모지지			-.096 (.020)	-.285***	.368 (.114)	1.091**
교차항	우울 * 부모지지					-.019 (.004)	-1.323***
R^2		.084		.152		.202	
F		25.271***		24.783***		23.172***	

***p<.001, **p<.01, *p<.05

5.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과 친구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의 주효과는 있었지만 친구지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의 주효과, 우울과 친구지지간의 상호작용효과($t(401)=-3.173$, $\beta = -1.342$, $p<.01$)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구지지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친구지지 중앙치를 중심으로 집단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낮은 친구지지를 보인 집단의 경우 우울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t(189)=4.770$, $\beta = .370$, $p<.001$), 높은 친구지지를 보인 집단의 경우 우울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표 8>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친구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804 (.091)	.445***	.801 (.092)	.443***	.322 (.620)	.179
조절변인	친구지지			-.015 (.063)	-.012	-.322 (.398)	-.260
교차항	우울 * 친구지지					.012 (.015)	.337
R^2		.198		.198		.200	
F		78.425***		39.126***		26.255***	

***p<.001, **p<.01, *p<.05

<표 9>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친구지지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479 (.095)	.289***	.519 (.102)	.313***	2.455 (.618)	1.483***
조절변인	친구지지			.074 (.069)	.067	1.395 (.422)	1.251**
교차항	우울 * 친구지지					-.052 (.016)	-1.342**
R^2		.084		.087		.120	
F		25.271***		13.230***		12.466***	

***p<.001, **p<.01, *p<.05

6.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부모와의 갈등의 조절효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과 부모와의 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0>, <표 11>에 제시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의 주효과는 있었지만 부모와의 갈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의 주효과와 우울과 부모와의 갈등의 상호작용효과($t(401)=-3.173$, $\beta=-1.342$, $p<.01$)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와의 갈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의 상호작용효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의 갈등 중앙치를 중심으로 집단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t(194)=3.666$, $\beta=.303$, $p<.001$)과 낮은 집단($t(183)=3.407$, $\beta=.275$, $p<.001$) 모두 우울 수준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부모와의 갈등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우울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부모와의 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804 (.091)	.445***	.799 (.090)	.443***	.767 (.334)	.425
조절변인	부모와의 갈등			.046 (.020)	.112*	.030 (.159)	.073
교차항	우울 * 부모와의 갈등					.001 (.006)	.043
R^2		.198		.211		.211	
F		78.425***		42.234***		28.071***	

*** $p<.001$, ** $p<.01$, * $p<.05$

<표 11>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부모와의 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479 (.095)	.289***	.476 (.096)	.288***	1.089 (.322)	.658**
조절변인	부모와의 갈등			.010 (.024)	.025	.322 (.158)	.790*
교차항	우울 * 부모와의 갈등					-.013 (.006)	-.879*
R^2		.084		.084		.097	
F		25.271***		12.271***		9.879***	

***p<.001, **p<.01, *p<.05

7.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친구와의 갈등의 조절효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과 친구와의 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2>, <표 13>에 제시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과 친구와의 갈등($t(436)=5.487$, $\beta=.265$,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우울과 친구와의 갈등간의 상호작용효과($t(436)=2.828$, $\beta=1.051$, $p<.01$)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친구와의 갈등 중앙치를 중심으로 집단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친구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t(191)=7.430$, $\beta=.498$, $p<.001$)과 낮은 집단($t(201)=5.154$, $\beta=.390$, $p<.001$) 모두 우울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친구와의 갈등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우울이 증가할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친구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친구와의 갈등의 주효과, 우울과 친구와의 갈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친구와의 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804 (.091)	.445***	.774 (.087)	.429***	-.129 (.331)	-.071
조절변인	친구와의 갈등			.187 (.034)	.265***	-.439 (.224)	-.619
교차항	우울 * 친구와의 갈등					.025 (.009)	1.051**
R^2		.198		.268		.286	
F		78.425***		57.866***		42.099***	

***p<.001, **p<.01, *p<.05

<표 13>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 친구와의 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 자살사고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변인	우울	.479 (.095)	.289***	.449 (.097)	.271***	.418 (.384)	.252
조절변인	친구와의 갈등			.053 (.038)	.082	.032 (.260)	.049
교차항	우울 * 친구와의 갈등					.001 (.010)	.043
R^2		.084		.090		.090	
F		25.271***		13.661***		9.077***	

***p<.001, **p<.01, *p<.05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 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우울, 그리고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 445명, 실업계 고등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우울이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살사고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되고(이은희 외, 2000; 전영주, 이숙현, 2000; 김은정, 2002; 정혜경 외 2003), 학교생활환경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정계숙(2005), 홍영수와 전선영(2005)의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하고 있다. 한편 박광배와 신민섭(1991)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우울의 매개효과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 우울의 완전매개효과는 없었지만, 2, 3학년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우울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높아짐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사이에 우울이라는 병리적 현상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살사고가 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성취의 강한 압박감은 학교생활이 강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도록 한다는 연구 결과(김명자 외, 2000; Fraser, 1996)와 연결해보면, 학교생활스트레스는 단순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이라는 병리적 심리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자살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생

할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이 부분매개를 한다는 결과에서 박광배와 신민섭(199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우울의 매개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부모지지와 부모갈등이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부모지지의 주효과만 있었던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와 더불어 부모갈등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부모지지 수준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은 부모지지 수준이 직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완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갈등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은 부모갈등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생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실업계 학생에게서 부모지지 수준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모지지 수준이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즉 부모지지의 낮은 수준이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Daniel, 2002; Kim & Kim, 2008), 부모지지의 높은 수준은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Leilani와 Laura, 2002; Ellizabeth, 2007)와 일치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지지되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완충해주는 효과가 커지고, 그 결과 부모 지지수준이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결과가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성만, 2001; 류계심, 2002; 이영희, 2007, 손득운, 2008)를 고려해 본다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학교생

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반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반응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완충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자살과 관련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나타내준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자살사고와 우울에 대한 부모지지의 완충적 효과가 있는데 비해 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지지의 보호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이다. 박광배와 신민섭(1991)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대인갈등의 많은 부분이 학업문제나 장래문제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유발되고 이러한 갈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점을 인용한다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업문제나 장래문제가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모지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지지가 인문계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면, 부모지지에 의한 우울이나 자살사고에 대한 완충적인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추론이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이후에 학원까지 다니는 상황에서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지지에 대해 덜 민감하게 되고 부모지지에 따른 우울이나 자살사고에 대한 완충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데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갈등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강요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손득운,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지각한다(이영희, 2007)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의미가 다각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부모갈등 정도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우울과 스트레스가 학교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관계에서도 높아짐으로써 부모와의 갈등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 경우 자살사고가

민감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결과로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김현순(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청소년 자살생각을 비교한 결과 우울에 있어서 노인집단과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을 매개하지 않고도 더 쉽게 자살을 생각하는 점이 노인집단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과 불편을 겪고 있는지, 특히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영해준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부모갈등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친구지지와 친구갈등이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차이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친구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인문계 고등학생에서는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 친구갈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친구지지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으나 실업계 고등학생은 우울수준이 높더라도 친구지지가 높으면 우울이 자살사고를 높이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에게서 친구갈등이 높은 집단이 친구갈등이 낮은 집단보다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가 더 민감하게 나타났는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은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친구갈등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와 성적으로 인해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친구들 간의 지지수준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친구들 간의 갈등이 자살사고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용되었던 선행연구(박광배, 신민섭, 1991)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에 있어서 자살사고는 주로 부모, 친구, 교사와의 갈등에 의해 유발되고, 청소년들의 부모, 친구, 교사와의 갈등은 학업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는 해석을 고려해본다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친구갈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구갈등의 정도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구지지의 효과는 자살사고에 완충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친구지지의 보호적 효과가 나타나는 실업계고등학생에 비해 자살사고에 있어서 취약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살펴볼 때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부모갈등과 친구갈등이 우울과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점은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개인적 변인이나 가족환경 변인, 자존감에서의 차이점에 의해 영향 받는다기 보다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직면한 학업적 스트레스 상황과 연관지워 해석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서 자살사고가 높아지거나,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 지지수준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완충해줌으로써 보호적 기능을 나타내주고 있음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 지지수준이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완충해주는 보호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지지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수준이 높더라도 친구지지가 높으면, 우울이 자살사고를 증가시키지 않는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보호적 기능을 시사해 주었다. 이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 친구지지의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친구지지에 의한 보호적 기능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갈등에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갈등에 따라 자살사고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친구과의 갈등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갈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가 민감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 친구갈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높을 경우 자살사고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력을 낮춤으로써 보호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지지와 친구지지의 정도에 따른 자살사고에 대한 보호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갈등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가 더 민감하게 나타남으로써 높은 친구갈등이 자살사고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갈등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가 더 민감하게 나타남으로써 부모갈등이 자살사고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자살사고에 영향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우울과 자살사고에 영향 주는 심리적 변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진로 결정효능감,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고, 비행충동성은 높은 것으로(류청렬, 1999; 정수자, 1999; 진은아, 2007)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사회에서는 학업성적과 입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자살사고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명자 외, 2000; 김정호, 이경숙, 2000; 문경숙, 2006). 그러나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그리고 부모갈등과 친구갈등이 영향 미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생활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이 세부적, 통합적으로 자살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밝히기 위해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보다 다양한 연령, 임상집단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고등학생에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교생활스트레스는 학업요인, 친구요인, 교사요인, 학교생활요인 등의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김수주,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교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학교생활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 자살사고와의 관계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후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영희(2007) 손득운(2008)의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교생활영역 중 학업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목표 및 가치관의 부재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자살사고간의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갈등척도의 모태가 된 Printz 외(1979)의 문제 항목조사지는 1979년에 개발되어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의 갈등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이 낮고,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을 짚 수 있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적절한 부모와의 갈등척도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중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갈등, 친구갈등 등 제한적인 요인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명자, 이정우, 계선자, 박미석, 송말희(2000). 고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2호, pp. 5-42.
- 김명진(2004).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2008).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주(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2).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1997).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양립성 지각과 비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이경숙(2000).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1호, pp. 43-59.
- 김현순(2008). 스트레스, 절망, 우울과 자살생각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계심(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실태 및 대처를 위한 심리교육적 접근.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청렬(1999).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별로 본 자아정체감과 비행충동간의 관계. 아동교육, 제8권 제2호, pp. 175-187.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제27권 제5호, pp. 143-157.
- 박광배, 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0권 제1호, pp. 298-314.
- 박영숙(2001). 우울감이 여자 청소년의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우울

- 감, 자기도피로서의 인지적 몰락 및 자존감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3권 제2호, pp. 137-158.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득운(200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0권 제1호, pp. 286-297.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제1호, pp. 1-19.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연, 전은영(2001).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환경적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pp. 197-217.
- 이영희(2007). 인문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식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고윤주(1999). 학령기 이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동 학회지, 제20권 제2호, pp. 225-242.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2000).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2권 제2호, pp. 69-84.
- 전영주, 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7권 제1호, pp. 221-246.
- 정계숙(2005). 청소년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자(1999).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의 차이. 교육심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 307-329.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제2호, pp. 107-126.
- 조성만(2001).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욱, 함봉진, 서동혁, 정선주, 조맹제(2002). 중고

- 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41권 제6호, pp. 1142-1155.
- 진은아(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7). 사망원인통계연보.
- 하상훈(2001).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 청소년상담원(2007). 청소년 자살: 예방과 상담.
- 홍영수, 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9권 제4호, pp. 125-149.
- 홍주영(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meister, R. F.(1990). Suicide as se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Vol. 97, pp. 90-113.
- Beautrais A. L., Joyce P. R., Mulder R. T.(1998). Psychiatric illness in a New Zealand sample of young people making serious suicide attempts. *Newzealand Medical Journal*, Vol. 111, pp. 44-48.
- Beck, A. T., Kovacs, M., Weissman, A.(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7, pp. 343-352.
- Brausch, Amy M., Muehlenkamp, Jennifer J.(2007). Body imag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Body Image*, Vol. 4, pp. 207-212.
- Chen, Sheung-Tak, Chan, A. C. M.(2007). Multiple pathways from stress to suicidality and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Hong Kong 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7 No. 2, pp. 187-196.
- Daniel F. Perkins(2002). An ecological risk-factor examination of suicide ideation and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aearch*, Vol. 17 No. 1, pp. 3-26.
- Ellizabeth M. Bertera(2007).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exchanges

- between adolescents, their peers and family as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Chil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24, pp. 523-538.
- Fergusson, D. M., Woodward LJ, Horwood Lj(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 Med*, Vol. 30, pp. 23-39.
- Fraser, M. W.(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Vol. 41 No. 4, pp. 347-361.
- Harris TL, Molock Sd.(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 30, pp. 341-353.
- Harter, S.(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ouston, K., Hawton, R. S.(2001). Suicide in young people aged 15-24: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63, pp. 159-170.
- Kim H. S., Kim H. S.(2008).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Vol. 39, pp. 221-235.
- Lauren G. Wild, Alan J. Flisher, Carl Lombard(2004).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six domain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Vol. 27 No. 6, pp. 611-624.
- Leilani Greening, Ph. D and Laura Stoppelbein, M.A(2002). Religiosity, attributional style and social support as psychosocial buffers fo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perceived risk for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2 No. 4, pp. 404-417.
- Mendelson, Morton J., Aboud, Frances E.(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Vol. 3 No. 2, pp. 130-132.
- Prin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1979). Multivariabl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Vol. 12, pp. 691-700.
- Schmidt, P., Muller, R., Dettmeyer, B. M.(2002). Suicide i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Vol. 127, pp. 161-167.
- Sheung-Tak Cheng, and Alfred C.M. Chan(2007). Multiple pathways from stress to suicidality and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hong kong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37 No. 2, pp. 187-196.
- Wargner BM(19997).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sychol Bull*, Vol. 121 No. 2, pp. 246-298.
- Waldvogel, J. L., Rueter, M., Obers, C. N.(2008). Adolescent suicide: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Curr Probl Pediatr Adolesc Health Care*, Vol. 38, pp. 110-125.
- Zung, W. W. K.(1965). A self-rat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12, pp. 63-70.

ABSTRACT

Protective and Risk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 An Approach Centered on School-Related Stress, Parent Relations and Peer Relations for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Park, You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school-related stress, support from parents, support from friends, conflict with parents, conflict with friend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 community group of Korean students from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students were selected from 6 high schools located in Gyunggi Province, with 445 students selected from academic high schools and 409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for both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partially mediates school-relat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2) For students from academic high schools, support from parents does no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ut for student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support from parents moderates the relation, 3) For students from academic high schools, support from friends does not have any interactional effects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ut for student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support from friends does have an interaction effect, 4) For students from academic high schools, conflict with parents does not have any interaction effect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ut for student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conflict with parents does have an

* Ewh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teraction effect. 5) For students from academic high schools, conflict with friend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ut for student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conflict with friends does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dealing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it is important to adopt differentiated coping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s.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chool life stress, parent's support, friend's support, parent's conflict, friend's conflict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4월 22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

